

<서평>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I: Thematische Entfaltung

R. Rendtorff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하경택*

1. 저자 소개

롤프 렌토르프(Rolf Rendtorff, 1925년-)는 1945-1950년 키엘, 괴팅엔, 하이델베르크(Kiel, Göttingen, Heidelberg)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하였고 1950년 괴팅엔대학에서 게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53년에 교수 자격 논문(Habilitation)을 완성하였다. 그는 베를린(Berlin)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1958-1963년), 자리를 옮겨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다(1963-1990년)가 은퇴하였다. 그는 현재 예루살렘, 프리토리아, 시카고, 로마(Jerusalem, Pretoria, Chicago, Rom) 대학 등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오경의 전승사 문제를 다룬 “Das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Problem des Pentateuch. Berlin (u.a.): de Gruyter, 1977”(1990년 영역됨)이 있고, 그의 경전적인 연구방법으로 구약 성서를 개관하고 있는 “Das Alte Testament: eine Einführ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1985년

*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영역됨)이 있으며, 지금 서평하고 있는 구약신학 제2권의 짝이 되는 구약신학 제1권이 있다.¹⁾

그에 의해서 강조된 구약 성서의 경전적 연구 방법이라는 학문적 연구 성과 외에, 특별히 유대교와 대화 문제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의 학문 연구가 현실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1963년 첫 번째 이스라엘 여행 이후 유대교와 이스라엘 문제를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는 1965년에 독일-이스라엘 협회(Deutsch-Israelischen Gesellschaft)의 공동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1977년에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독일-이스라엘 연구위원회(Deutsch-Israelischen Arbeitskreises für Frieden im Nahen Osten)의 공동 발기인이자 의장 역을 맡는다. 그리고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독일 “개신교회의 날”의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연구위원회(Arbeitsgemeinschaft Juden und Christen des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ntages)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²⁾

1)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Ein kanonischer Entwurf*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2) 그는 다년간 독일 개신교회의 교회와 유대교 연구 위원회의 의장 역임하며 “기독교인과 유대인” 연구의 공동 발행인으로서 활동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Christen und Juden” I (1975) und II (1991). 또한 기독교-유대교의 대화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출판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책들이 주목할 만하다. *Israel und sein Land. 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einem politischen Problem* (1975); *Thema: Juden, Christen, Israel. Ein Gespräch mit Helmut Gollwitzer* (1978); *Arbeitsbuch Christen und Juden. Zur Studie des Rates der EKD* (1979) (4. Aufl. 1989); *Die Kirchen und das Judentum. Dokumente von 1945-1985* [(mit Hans Hermann Henrix) (1988)] ; *Hat denn Gott sein Volk verstoßen? Die evangelische Kirche und das Judentum seit* (1945); *Ein Kommentar* (1989); *Christen und Juden heute. Neue Einsichten und neue Aufgaben* (1998).

2. 렌토르프의 구약 신학 방법론

구약 성서 신학사에서 큰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 폰라트의 구약 신학의 출현이다. 폰라트의 등장으로 나타난 새로움이란 칼 바르트(K. Barth) 신학의 등장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구약학 내에서 특히 알트(A. Alt)와 노트(M. Noth)가 이룬 성과들이 함께 작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폰라트라는 구약학자에 의해서 각인된 하나의 신학적 새 출발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었다.

렌토르프는 폰라트의 제자로서 폰라트 구약신학의 특징적인 요소를 그 유산으로 이어받고 있다. 폰라트 구약신학이 보여주는 특징이자 렌토르프가 수용한 결정적인 요소는 구약신학의 기술(Darstellung)이 본질적으로 성서의 본문에 의해 그것들의 맥락 안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렌토르프 구약신학과 대부분의 다른 구상들(Entwürfe)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다른 구상들은 구약신학의 기술-교의학적인 전통에서 빌려온 것이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든-하나의 조직적인 개념으로 전개된다거나 하나의 역사적 혹은 종교사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렌토르프의 구약신학은 브뤼거만(W. Brueggemann)³⁾의 구약신학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브뤼거만의 구약신학에서는 대부분 매우 짧은 본문 인용들이 저자의 특별한 문제 제기와 다양하게 바뀌는 관점들 속에서 고찰된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 성서가 보여주는 매우 생생하고 고무적인 그림이 생겨난다. 그러나 거기에 인용된 성서의 본문들이 자기 자신의 문맥들 안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3) W.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1997; 『구약신학』, 류호준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렌토르프의 구약신학 서술을 규정하는 핵심어는 “경전적”(kanonisch)이란 말이다. 그는 이 개념을 1970년대 영어권에서 전 개되었던 논쟁으로부터 수용했다고 말한다(p. 281). 그는 특별히 차일즈(B. Childs)의 책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1979)에서 자신의 방법론에 대한 결정적인 동기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으로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자극을 수용했다. 첫째로 히브리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의 “최종 형태”(Endgestalt) 안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실행되는 성서 본문의 역사-비평적인 취급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오경에 대한 자료 비평의 결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⁴⁾, 이사야서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시도를 전개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포괄하는 요소들이 이사야서를 전체로서 하나의 책을 형성하려는 의도성이 짙은 요소들이라고 추론하였다.⁵⁾ 이러한 문제 제기에 상응하게 현재 구약학계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승된 책들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구약 성서 해석 방법론에서 본문의 “최종 형태”가 역사적으로 규명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논쟁거리가 되지만, 렌토르프는 이 개념이 무엇보다도 비판적인 “재구성”을 통해 얻어진 본문의 형태에 대한

4) Rendtorff, “Das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Problem des Pentateuch,” BZAW 147 (1977).

5) Rendtorff, “Zur Komposition des Buches Jesaja,” VT 34 (1984), 295-320. 이러한 렌토르프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12 소 예언서를 하나의 책으로 보려는 입장들에 대해서 다음 책들을 참조하라. *The Book of Isaiah: A Complex Unity.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in New Visions of Isaiah*, JSOT.S 214(1996), 32-49; *How to Read the Book of the Twelve as a Theological Unity*, SBL.SP(1997), 420-432.

대안(Alternative)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가 역사-비평적인 주석의 결과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문제 제기와 해석 관심(Auslegungsinteresse)의 전환을 강조한다.

역사-비평적 주석은, 특히 독일어권에서, 통상적으로 본문에 대한 “문헌비평”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다. 그것은 첫 번째 관심을 본문의 “문헌적인 통일성 또는 비통일성”의 문제에 둔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개별 본문”이 고려된다. “단절, 불일치나 긴장 등이 발견”된 경우 “획득된 본문의 부분들을” “의미가 통하는(sinnvoll) 서술과 행동의 전개”를 위해 재조정하고, 이것을 “더 넓은 범위의-다시금 의미가 통하는-맥락”에 배열한다.⁶⁾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매번 해석자가 “의미가 통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의 새로운 본문이 “재구성”된다-여기에는 어쨌든 현재의 최종 형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써 주석의 우선적인 관심이 현재의 최종 본문에서 벗어나 자신이 “재구성한” 본문에 모아졌다. 현재의 최종 본문에 대한 해석은 결국 이차적인 것으로 관찰되고 종합된 본문으로서 단지 두 번째 단계에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렌토르프는 이러한 역사비평적 연구 방법론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해석자의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는 현재 형태로 되어 있는 “최종 본문의 해석”이라고 강조한다. 문제 제기의 이러한 전환은 해석에 대한 관심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괄한다. 그는 모든 성서 본문이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형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렌토르프는 이러한 자신의 방법론을 통해 중요한 한 것은 “성서 본문들의 그 신학(die Theologie der biblischen Texte)이지,

6) W. H. Schmidt, “Elementare Erwägungen zur Quellenscheidung im Pentateuch,” *Vielfalt und Einheit des alttestamentlichen Glaubens*, Bd. 2, (1995), 121.

문헌적-역사적으로 재구성한 본문이 보여주는 앞에 지나가버린 (vorgängig) 신학”이 아니라고 말한다.⁷⁾ 성서 본문의 저자(Verfasser) -여기에서 그는 이 용어를 통해 “최종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한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우리에게 이 본문들을 바로 이러한 형태로 전승 하였지 어떤 다른 이전 단계의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별히 성서 본문은 현재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형태로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두 신앙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당화된 접근은 본문의 현재 형태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내용 구성

저자는 구약신학 제1권에서 히브리 성서의 책들을 차례대로 다루면서 구약 성서 본문들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여러 목소리들을 들려 주고자 애쓴다. 그러나 구약신학 제2권에서는 “주제적인 접근”을 한다. 주제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최종 본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여전하다. 구약 성서의 다양한 주제들이 구약 성서 본문을 통해 제시된 순서를 따라 기술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시에 히브리 성서 본문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시대 안에서 이루어졌던 근본적인 변화가 매우 분명하게 인지된다. “죽장”시대에서 출애굽 시대를 거쳐, 자신들에게 수여된 땅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는 시기(Konsolidierung)와 한 왕조 아래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 이 왕조가 멸망하고 바벨론 유배지에서 체류의 시기를 거친 후에 마침내 귀환하여 그 공동체의 삶이 새롭게 견고하게 되는 시기까지(Neukonsolidierung).

7) Crüsemann, “Religionsgeschichte oder Theologie? Elementare Überlieferungen zu einer falschen Alternative,” *JBTb* 10 (1995), 71.

제1장은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세계”(Die Welt als Gottes Schöpfung)라는 주제를 다룬다(B. I). 이 주제는 히브리 성서의 첫 번째 장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다른 책들에서도 폭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조라는 주제가 독자적으로 그 자체만을 위해서 다루어지지 않고, 다른 주제들과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저자는 “창조”라는 주제가 특별히 세계와 역사의 다양한 영역-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이 가장 우선적이다-에서 고찰되는 하나님의 행동과 깊은 관련성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창조와 창조주에 대한 다양한 진술들을 서로 관련시키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심상(心想)들과 사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다양한 진로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제2장의 주제는 “언약”(Bund)이라는 핵심어로서 표현된다(B. II).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히브리 본문의 특정한 개념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어느 정도나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저자는 “언약”이라는 말로 옮겨지는 히브리 낱말 베리트(berit)가 히브리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낱말이 의미하는 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렵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인 선택(Erwählen, bāhar)은 또 다른 단면을 포괄한다. 예컨대 “언약 형식구”(“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와 같은 표현들은 이 주제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어떤 특정한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날지라도 어떤 주제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3장의 주제는 “족장들”(Väter)의 의미이다(B. III). 성서 이야기의 계속되는 진행에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들로 다룬다. 족장들에 대한 언급은 히브리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다

양하게 고찰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족장들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신학적인 강조점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에 주목한다. 특별히 이 주제를 통해 자신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기 비판적인 시각이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족장들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의 수령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장본인들로서도 고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의 주제는 “땅”(Land)이다(B. IV). 땅이라는 주제는 족장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땅이 족장사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소유를 처음으로 약속받은 것이 족장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주제는 더욱 폭넓게 전개된다. 저자는 히브리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땅에 대한 약속과 그것의 성취, 또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언급되고 있으며, 중요한 신학적 진술들이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땅의 주제가 구약 성서의 중요한 주제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제5장의 주제는 “출애굽”(Exodus)이다(B. V). 이 주제는 이미 제4장의 “땅”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후에야 비로소 족장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와 동시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행위는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와 그 안에서 행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각인된다. 그러나 이 출애굽 경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세대의 경험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난 하나의 “제2의 출애굽”으로 이해된다. 저자는 이러한 진술들을 고찰하면서, 많은 본문 가운데에 제2의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에 관한 진술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거나 화제가 서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뿐 아니라 그는 초기의 주제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후대적인 시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고찰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바로 이 “출애굽” 주제를 통해서 확인해 준다.

제6장의 주제는 “토라”(Tora)이다(B. VI). 이집트로부터 탈출에 이어서 시나이산에서 선포된 토라에 주목하는 것은 저자가 철저하게 히브리 성서본문의 진술을 따른 결과다. 여기에서도 곧바로 이 주제가 히브리 성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똑똑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토라는 본문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기에 걸쳐 삶의 중심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제7장은 “제의”(Kult)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B. VII). 제의에 대한 서술도 그 범위 면에서 볼 때 토라에 뒤지지 않는다. 제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삶의 장소를 형성한다. 저자는 제의에 대한 규정이 우선 시나이산에서 설립된 성소에서 강력적으로(programmatisch) 기술되며, 그 이후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삶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양한 시대의 제의적 삶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중앙제의, 성전파괴 이전과 이후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 재건 시대에 해당된다. 이때 다양한 제의 전통들이 함께 흘러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다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제8장은 “모세”(Mose)라는 인물에 주목한다(B. VIII). 지금까지 열거한 일곱 개의 장들이 오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보여준다면, 오경 안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즉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포괄하며 특징지우는 한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단지 오경 본문의 직접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세만을 문제삼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로부터 후대의 모든 공직자들이 평가되는 표본적인 지도자상(像)으로서 모세의 문제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제9장과 제10장에서 저자는 오경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고 큰 파장을 일으키는 두 가지 핵심어에 주목한다. 그 첫 번째가 왕정(Königtum)이다(B. IX). 이것을 오경은 오직 한 번 거의 부수적으로 언급한다(신 17:14-20). 그러나 이어지는 책들에서 이것이 점점

더 중심적인 주제로 부각된다. 그것이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등장하며, 결국에 가서는 표면상으로 보면 당연한 제도로서 정착된다. 이 제도는 특히 “전기 예언서” 대부분을 압도한다. 이때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다윗이라는 인물과 다윗 왕조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윗 왕조는 히브리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왕정의 모습을 결정한다.

두 번째 새로운 주제가 시온(Zion)이다(B. X). 이 명칭은 오경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전기 예언서”에서 단지 “다윗의 도성”(삼하5:7 등)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지역에 대한 명칭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잘 보여준다. 시온이 보여주는 심상들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시로,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 관한 심상들의 담지자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온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리자로 표현된다.

저자가 지금까지는 히브리 성서가 전달하고 있는 일련의 “주제들”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히브리 성서를 개관하거나 그것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독자 자신들에게 생겨나는 “의문들”에 관심의 초점을 옮긴다. 그것은 지금까지 서술된 모든 내용 가운데 두 당사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들이다. 그래서 제11장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진술되는가?”(Wie von Gott reden?)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진술의 주체로 나타나는지 주목한다(B. XI). 제12장에서는 이와 상응한 내용들이 정반대의 시각에서 서술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다양하게 그리고 상이한 맥락 안에서 그 내용이 진술된다. 이때 드러나는 이스라엘상(像)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모순되게 보이기까지 하는데,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항하는 이스라엘”(Israel im Widerstreit)이란 제목 아래 다루고 있다(B. XII).

그런 후 다시금 고찰의 주시 방향이 바뀐다. 정경으로서의 히브리 성서의 여러 중심부분들에 들어 있는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는 세 본문의 영역들이 고찰된다. 이 영역들에는 하나님에 관한 발언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발언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발언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는 인간들에 관한 발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저자는 제13장의 “예언적인 발언들”(das prophetische Reden)(B. XIII), 제14장의 특별히 시편에서 발견되는 “기도의 발언들”(das betende Reden)(B. XIV), 제15장의 “지혜문헌에 나타나는 관조적이며 숙고적인 발언들”(das betrachtend-reflektierende Reden in der Weisheitsliteratur)(B. XV)이라는 제목 아래 기술하고 있다.

제16장은 “이스라엘, 열방, 이방 민족들의 신들”(Israel, die Völker und die Götter)에 관한 내용이다(B. XVI). 저자는 이 장에서 이전 장들에서 발견되는 나머지 열방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고찰과 숙고들을 전개한다. 이때 특별히 언제나 분쟁의 원인이었던 이방 민족들의 신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가 문제된다. 그런 후 본문들에서는 열방들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진술되는지에 관한 몇 가지 간명한 고찰들이 이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두 장에서는 요약과 전망이 나타난다. 제17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Wie sieht Israel seine Geschichte?)하는 문제가 다루어진다(B. XVII). 이러한 질문을 통해 저자는 다시 한 번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다양한 전체적 구상들을 조망한다. 그런 다음 특별히 이러한 구상들이나 다른 입장들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이러한 역사가 서술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관심을 돌린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양한 고찰방식들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 역사가 실제로 끝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로써 저자는 본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종적인 질문으로 넘어간다.

마지막 장인 제18장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Was erwartet Israel von der Zukunft?)이다(B. XVIII). 저자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많은 전통의 흐름들이 서로 합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시선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를 넘어서는 미래로 향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로 향하고 있는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바를 서술하고 있다.

4. 평가와 전망

렌토르프는 구약 성서가 “하나의 신학적인 책”(ein theologisches Buch)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가 구약신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잘 대변해 준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가 그 자체로 완결된 신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신학적 구성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 구약신학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제적 고찰까지도 히브리 성서 본문의 “최종 형태”가 보여주는 순서에 따라 구약신학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렌토르프의 구약신학은 역사-비평적 연구결과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독자들이 접하는 본문의 형태가 보여주는 신학적 진술을 입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히브리 성서 본문의 기술을 따라가면서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본

문들을 동시에 고찰하게 함으로써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함의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히브리 성서가 왜 현재와 같은 모습 속에서 진술되고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본문의 최종 형태 이면에 있는 신학적 관심과 입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이 특별히 경전으로서의 성서의 의미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한국교회에 구약 성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제공하고, 구약 성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안내서로서 주목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평을 마친다.